

1. 서론
2. 申欽의 明代 서적 구독
3. 『小窗淸紀』 열람과 選錄集 『野言』 제작
4. 『野言』의 選錄과 개작 양상
5. 『野言』의 選錄과 개작 의의
6. 남는 문제

1. 서론

申欽(1566~1628)의 학술과 사상은 그 편폭이 매우 다양하다. 「先天窺管」을 저술할 정도로 易에 조예가 있었고, 老莊에 경도된 모습도 확인된다.¹⁾ 그러나 그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明代 학술이다.²⁾ 신흘의 아들 신탁성은 부친이 학문으로는 羅倫(1431~1529)·薛瑄(1389~1464)과 같은 유학자를 宗으로 삼고, 王守仁(1492~1529)·陳獻章(1428~1500)·羅洪先(1502~1564)·莊景(1368~?) 등의 양명학자를 妙契로 삼았으며, 문장으로는 宋濂(1310~1381)·方孝孺(1357~1402)·李夢陽(1473~1530)·何景明(1483~1521)·李攀龍(1514~1570)·張適(1363~?)·王世貞(1526~1590)을 대가로 여겼다고 하였다.³⁾ 이 기록을 통해 신흘이 명대 학술로서 陽明學과 前後七子の 복고주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신흘이 學明에 앞장섰다는 점은 이미 張維의 문집 서문에서 언급되었

1) 신흘의 학술 전반에 대해서는 박희병, 「신흘의 학문과 사상」(『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참조.
2) 신승훈, 「朝鮮中期 文章家들의 陽明學 受容의 樣相과 意味」, 『東洋漢文學研究』 20, 2004 ; 김우정, 「申欽의 散文과 前後七子」, 『大東文化研究』 69, 2010.
3) 신탁성, <上孫太史承宗>, 『樂全堂集』 권9.

으며, 4) 金昌協의 『農巖雜識』에서도 확인된다.⁵⁾

그러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신흠은 明代의 학술과 문학을 접하였을까? 당대 지식인이 독서와 저술, 출판을 통해서 상호간 학술과 문학을 교류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학술과 문학을 서적의 수입과 보급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자기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조선에서는 중국 新書에 대한 관심과 입수 노력이 급격하게 증대하였으며, 그 영향 또한 대단하였다. 왜냐하면 晚明 시기 중국 문단 및 출간 서적의 성격은 전대와 큰 성향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서적의 收藏, 독서 경험의 유무가 조선 문인들의 개성적이고 참신한 문학 창출의 절대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

신흠이 九流의 전적에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독서광이었던 점을 상기하면, 그가 사유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明에서 출간된 새로운 서적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사상과 문학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신흠은 자신이 어떠한 책을 소장하고 읽었는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가 어떠한 경로로 명대 학술과 문학을 접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보고는 신흠의 학술과 저서를 살피는 단서로서 『野言』에 접근하고자 한다.⁷⁾ 문집에 실린 신흠의 서문에 따르면⁸⁾ 『야언』은 옛 사람의 글 중에 마음에 부합되는 것을 취하여 자신의 뜻을 곁들인 것이다. 특히 『야언』 2권 가운데 권1은 淸言 選錄集으로서⁹⁾ 許筠(1669~1618)의 『閒情錄』과 더불어 17세기 초 조선 지식인의 청언 수용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¹⁰⁾

4) 張維, <玄軒先生集序>, 『谿谷集』 권6.

5) 金昌協, 『農巖雜識外篇』 58쪽.

6) 김영진, 「조선후기의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3, p.28; 김영진, 「18세기 말 서울의 명,청 서적 유통 실태」, 『17,18세기 동아시아의 독서문화와 문화변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4; 김영진, 「조선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 문화」,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 한국학연구소편, 한양대출판부, 2006.

7) 『야언』은 『象村稿』外稿 권48-49에 수록되어 있다.

8) 田居歲久, 已作世外人, 適披前修著撰, 有會心者, 錄爲小帙, 間附己意, 名以野言, 迹其實也, 其言宜於野, 可與野人言也.(신흠, 『象村稿』권48 外稿)

9) 그간 淸言 연구는 小品文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한영규, 「明清과 대비한 조선후기 淸言小品의 특징」, 『고전문학연구』 21, 2002; 한영규, 「조희룡 산문의 晚明 淸言小品 수용과 그 특징」, 『한문학보』4, 2001; 김성진, 「조선후기 소품문과 양생」, 『동양한문학연구』 30, 2010.) 한편, 근래에 청언소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대하여 여러 종의 역주서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권1의 출처를 추적함으로써 신희가 접하였던 淸言集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허균의 『한정록』은 800여 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100여 종의 인용서목을 밝히고 있지만, 『야언』은 1권 52則, 2권 51則으로 이루어진 단편인데다가 인용서목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한정록』이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 그 의의가 다각도로 조명되고 그 인용서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반면에,¹¹⁾ 『야언』은 청언 선록집으로서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연구가 전무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야언』의 출처와 선록양상을 살핌으로서 신희의 명대 서적 구득의 실상과 당대 조선 지식인의 만명청언 수용의 한 양상을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申欽의 明代 서적 구득

17세기 초에 이르면 대규모 藏書家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몇몇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明 문학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許筠이다. 신희 또한 명대 학술과 문학 수용에 적극적이었지만, 그가 대규모 장서를 구축하였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신희의 명대 서적 구입과 관련한 정황 증거로서 堂號가 적힌 四欄空卷을 들 수 있다. 일종의 원고지라 할 수 있는 사란공권을 명대 판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선에서는 18세기 유행하였다.¹²⁾ 그런데 사란공권을 개인이 마련하여 사용한 가장 이른 예가 바로 신희의 아들 申翊聖의 ‘樂全堂藏’ 사란공권이다. 이 원고지에 신희의 『상춘고』가 필사되어 있고,¹³⁾ 신익성 자신의 문집은 ‘樂齋’ 사란공권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¹⁴⁾ 신익성이 명대 서적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익성의 여타 학술과 문학적 성과가

10) 권2는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性理書를 보고 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1) 한영규, 「『閒寂』의 선당과 『閒情錄』」, 『문헌과해석』 19, 2002; 김은슬, 「『閒情錄』 인용문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09.

12) 김영진, 앞의 논문(2006), 647면.

13)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필사본 19장. 김영진, 앞의 논문(2006), 647면, 재인용.

14) 신익성, 『先集』 제7책, 『先集 續稿』 제1·2·5책, 후손가 가장 초고본.

그러하였듯이,¹⁵⁾ 명대 서적 구비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家學 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신희이 명대 서적의 구입에 힘을 쏟았고, 그 영향을 받은 신익성이 명대판본을 모방하여 사란공권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신희은 어떠한 경로로 중국 서적을 입수하였는가? 일반적으로 중국 문사와의 교류, 사행을 통한 직접 구매, 중국행 인편을 통한 구득, 대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로 중국 서적을 입수할 수 있다.¹⁶⁾ 許筠이 朱之蕃과의 교류 및 두 차례의 사행을 통해서 방대한 양의 중국 서적을 구입하였고, 그 영향이 이후 문단에 지대하였던 것이 바로 가장 앞서면서도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 신희의 경우 역시 중국 서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발빠르게 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594년과 1610년 두 차례의 사행 때 책을 구입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아울러 1601년 天使 顧天垓의 平壤迎慰使, 1606년 詔使 朱之蕃의 義州迎慰使, 1609년 天使 熊化와 劉用의 義州迎慰使가 되어 중국 사신을 접하였을 때도 중국의 문단 동향과 신간 서적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구득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희은 최대의 중국 서적 구입처인 왕실과도 밀접하였다. 신익성이 부마로서¹⁷⁾ 왕실을 통해 최신의 서적을 가장 먼저 열람하거나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1603년 선조가 貞淑翁主에게 내린 언간에 “『包公案』 한 질을 신익성에게 내린다”고 했는데, 이는 명에서 1597년에 간행된 『包孝肅公百家公案演義』를 불과 5,6년 후에 보았다고 할 수 있다.¹⁸⁾ 이처럼 신익성과 같은 왕실 관계자들은 명의 최신 소설을 비롯한 서적을 재빨리 구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신희은 왕실 구성원인 아들을 통해서 중국 서적을 가장 빨리, 그리고 능동적으로 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대여를 통한 명 서적 열람의 가능성도 있다. 신희이 1594년 사행에

15) 김은정, 「樂全堂 申翊聖의 文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pp.41-60.

16) 노경희, 「許筠의 중국 문단과의 접촉과 詩選集 편찬 연구」, 『한국한서연구』 14, 2006, pp.283-5; 김은슬, 앞의 논문, pp.10-15.

17) 신익성은 1599년(선조 32)에 선조의 제 3녀 貞淑翁主와 혼인하여 東陽尉에 봉해졌다.

18) 정길수, 「17세기 長篇小說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논문, 2005, pp.48-49.

모시고 갔던 尹根壽·崔崧은 대표적인 古文辭家로서 명 문학 수용에 앞장섰었는데, 신흠이 지속적으로 교유관계를 맺으면서 교유의 일환으로서 서적을 상호 열람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의 절친한 벗인 李暉光(1563~1628)은 명대 학술과 서적의 영향을 받아 1614년에 『芝峯類說』을 완성하였는데,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耳譚』 등의 서적을 신흠도 열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흠은 1613년 계축옥사 이후 1623년 인조반정까지 10년간 정치적으로 실세하였지만 오히려 학문과 저술에 힘쓸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던바, 독서가 일상사였던 그는 사람을 시켜 중국에서 서적을 구입해 오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邵子全書』를 들 수 있다. 신흠은 1613년 김포로 방축되자 평소 관심이 있던 『皇極經世書』에 요약된 法數를 살펴 그 요체가 加倍之法이라는 것을 깨쳤다. 그런데 그가 본 『황극경세서』는 『性理大全』에 수록된 요약본이었고, 신흠은 자신의 깨달음이 과연 옳은지 확인하고자 하여 북경에 돈을 보내어 『邵子全書』를 구입해 와서 비교해 보니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¹⁹⁾ 이 일화는 신흠의 邵易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방축된 상황에서도 신흠이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을 ‘돈’으로 ‘북경’에서 구입하였다는 점이다. 그만큼 신흠은 책에 관한 독서력, 정보력과 함께 ‘구입력’도 있었다고 하겠다.

이렇듯 몇 가지 정황으로서 신흠의 서적 구입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익성이 『상촌고』를 편찬하면서 부친은 자신의 시문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듯이,²⁰⁾ 신흠은 자신이 어떠한 책을 소장하고 읽었는가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겠지만, 신흠이 선조·광해조의 정치적 격동 속에서 살았던 점을 상기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적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신흠의 행적은 여러모로 허균과 대비된다고 하겠다.

19) 신흠, <先天窺管跋>, 『先天窺管』, 『象村稿』 권60; 김상헌, <行狀>, 『象村稿』 부록1; 이정구, <신도비명>, 『象村稿』 부록2.

20) 신익성, <先集題辭序>, 『先集』 권12.

3. 『小窓清紀』 열람과 선록집 『野言』 제작

신흙과 허균은 1613년 계축옥사 이후에 정치적 행보가 갈리지만, 그 이전에는 시문을 교환하거나 문집의 서문을 지어주는 등 친분을 유지하였었다. 또한 그들의 독서범위가 상당히 교차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증거로 신흙의 청언 선록집 『야언』에 수록된 기사가 허균의 『한정록』과 같은 내용인 것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야언』 권1 전체 52則 가운데 『한정록』과 일치하는 것은 모두 26則(한적2, 유흥2, 유사3, 명훈13, 정업2, 청공3, 섭생1)이다. 이러한 사실은 허균이 『한정록』에 인용서목으로 밝힌 문헌을 신흙 역시 열람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신흙이 『야언』에서 인용한 문헌은 오로지 明 吳從先의 淸言集 『小窓清紀』 하나뿐이다.²¹⁾ 『소창청기』는 허균이 『閒情錄』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인용하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 신흙 역시 이를 읽었고 그 가운데 일부를 선록하여 『野言』 권1로 편찬한 것이다.

오종선은 생몰년과 행적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문인이다. 그는 1610년대를 전후하여 남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자는 寧野, 호는 小窓이며 翁縣 사람으로 馮夢禎에게 배웠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벼슬하지 않은 채 張榜, 何偉然, 焦竑 등의 문인과 교유하였고, 책을 편집, 출판하는 일에 관여하였다.²²⁾

오종선이 1613년에 편집한 『小窓清紀』는 한적·아취생활과 관계된 내용을 담은 청언집으로, 「淸語」·「淸事」·「靑韻」·「淸享」의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²³⁾ 일반적으로 청언은 창작된 경우도 있지만 전인의 글을 편집한 경우도 많은데, 오종선 역시 『청기』에 전대 문인의 글은 물론이려니와 陳繼儒, 李卓吾, 袁宏道와 같은 동시기 문인의 글을 선록하고 있으며, 자신의

21) 본고는 『四庫全書存目叢書』 수록본 『小窓清紀』를 참고하였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필사본 3책 『小窓清紀』(<0330 138 1~3>)가 있고,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의 필사본 『山窓淸話』(<고 820 산01>)에 '小窓淸記抄'라 하여 『소창청기』의 일부가 초록되어 있다. 이들 책의 상관관계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22) 王重民, 『冷廬文藪』, 上海古籍出版社, 1992, pp.177-195.

23) 『四庫全書存目叢書』 수록본 『小窓清紀』는 「淸語」가 上·下 2권으로 되어 있다. 신흙은 이 간본을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

창작도 상당히 포함시키고 있다.

『청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본 사람은 허균으로, 1614·1615년의 사행 때 이 책을 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허균은 이보다 앞서 1606년에 ‘閑情’과 관련된 조목을 4유문으로 나누어 『한정록』을 편집하였다가 1610년에 이를 10권으로 증보한바 있었는데, 1617년 이를 다시 증보할 때 새로 접한 『청기』의 조목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때 완성된 『한정록』의 인용서목에 袁宏道와 李卓吾의 저술이 포함된 것은 『청기』에 인용된 내용을 재인용한 결과이다.²⁴⁾ 뿐만 아니라 허균은 오종선의 <書憲>과 <花案>을 부록에 싣고 있기도 하다.²⁵⁾ 허균은 신간서를 거의 동시적으로 소화해 내고 뛰어난 감식력으로 그것을 『한정록』에 반영시킨 것이다. 허균이 『청기』에 주목한 것은 그 책의 새로움을 알아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창청기』의 새로움과 중요성에 주목한 것은 허균 한 사람뿐이 아니었다. 신희미 바로 거의 동시기에 『청기』를 열람하고 『野言』이라는 선록집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같은 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선록하는 방법은 달랐다. 허균이 이미 ‘한정’과 관계된 내용을 유문으로 나누어서 선록한 바에다가, 『청기』를 접하고서는 유문을 16유문으로 확대하여 재편집하였다면, 신희미는 온전히 『청기』에서 취하여 『야언』 권1을 완성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필사본 『野言』²⁶⁾이 소장되어 있다. 그 지질이나 글씨체로 보건대 신희미의 자필본으로 추정된다. 필사본 『野言』은 허균의 『한정록』이 여러 이본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 이본이 있어 당대에 크게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체제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 또다른 필사본이 존재하며,²⁷⁾ 무엇보다도 목판으로 판각되어 유

24) 한영규(2002), 부유섭, 김은슬, 앞의 논문.

25) 그간 <花案>은 원평도의 <瓶花史>의 일부로 알려졌는데, 오종선의 글이다.(김은슬, 앞의 논문, p.51)

26) 서울대 중앙도서관 <일사 041 Si61y>.

2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5416>.

통되었다.²⁸⁾ 목판본의 존재는 이 책이 대량으로 소비되었음을 뒷받침하는데, 신흙의 유려한 글씨로 짙막하고도 清新한 문구를 감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즉 『야언』은 『한정록』만큼 문인들 사이에 상당히 유행하며 영향력이 컸던 책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문집 수록본과 대부분이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다. 특히 서문이 문집 수록본과 약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권말에 발문이 있어 저술의 동기와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 전원에 산 지 오래 되었으니 世外人이 다 되었다. 형편에 따라 작은 책자에 글을 모아 기록하니, 그 말은 野라 해야 마땅할 것이므로 가히 野人과 더불어 말할 만하다. 玄翁이 쓰다.²⁹⁾

○ 나는 謫所에서 10년을 살았는데 하는 일이 없어 때때로 서적에 눈을 두어서 會心하는 것이 있으면 간간이 적고 내 말도 붙였으니 대개 반 정도였다. 오래도록 한가하였으므로 홀로 默契하고는 스스로 즐기는 것이 없지는 않았으나 지금에 還朝해서 조석으로 골몰하느라고 위로는 聖明을 돕지 못하고 밑으로는 初志대로 하지도 못하니 籠中의 鶴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길게 우는 것과 같다. 우연히 조금 여가가 있어서 舊簡의 것을 쓰니 거의 後日에 辭職하고 退歸하게 되면 이것도 紀念이 될 것이다.

天啓 5년(1625) 중추 상순에 玄翁이 쓰다.³⁰⁾

두 글의 내용을 합치면, 방축기에 마음에 맞는 구절을 모아 엮어두었는데 거기에 자신의 말도 덧붙였음과, 1625년(인조 3)의 여가에 다시 이를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애초의 서발을 합쳐서 문집 수록본의 서문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28)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만송 C12 A75>.

29) 田居歲久, 已作世外人, 遇境而會書諸小簡, 其言宜於野, 可與野人言也. 玄翁書.

30) 余居謫十年無所事, 時寓日篇帙, 有會心, 間錄之發號, 附以己語, 蓋參半焉. 得閒久, 故不無獨契而自怡者, 暨今還朝汨沒晨暮, 上不能裨補聖明, 下不能遂吾初欣, 有似籠中之鶴望秋宵而長唳, 偶偷少暇, 紬舊簡書之 庶幾異日乞骸歸休, 持以爲質云. 天啓五年仲秋上旬, 玄翁跋.

특히 신흠이 ‘내 말도 붙였으니 대개 반 정도였다.(附以己語, 盖參半焉)’라고 하였듯이 선록 과정에 자신의 뜻과 부합되도록 개작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즉 신흠은 『청기』를 선록하되, 자신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 기사에 변주를 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기』에 대한 이해와 소화력이 허균만 못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신흠이 『청기』에서 특별히 52칙만 선록한 의도가 무엇이며, 개작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4. 『野言』의 선록과 개작 양상

4.1. 會心の 선록과 개작

신흠은 『야언』의 서문에서 ‘마음에 맞는(會心)’ 구절을 뽑는다고 하였는데, 다음 『야언』 권1의 첫 항목에는 ‘會心’의 내용이면서 『야언』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어>19

口中不設雌黃 眉端不掛煩惱 可稱煙火神仙 隨意而栽花竹 適性而養禽魚 此是山林經濟

<야언>1

口中不設雌黃 眉端不掛煩惱 可稱煙火神仙

입 속에 雌黃을 담지 않고 眉間에 번뇌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으면, 煙火의 신선이라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야언>2

隨意而栽花竹 適性而養禽魚 此是山林經濟

마음 내키는 대로 화초와 대나무를 심고, 適性대로 새와 고기를 키우면, 이것이 곧 山林의 經濟이다.

신흠은 『소창청기』 「清語」에 수록된 明 屠隆의 『娑羅館清言』의 구문을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기록하였다.³¹⁾ 여기에는 ‘煙火神仙’과 ‘山林經濟’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려서부터 道家사상에 경도되었으나 원하지 않은 관직생활을 오래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정치적인 실세로 인해 방축된 신흠으로서 처세로서 비평과 번뇌를 없애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그것이 자신이 煙火神仙으로서 살아가는 방편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골에서의 삶을 영위함에 그럴듯한 계획이나 거창한 준비 없이 隨意와 適性대로 주위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山林經濟라고 한 것에 동감한 것이다. 이렇듯 신흠은 會心の 내용을 『야언』에 담게 되는데, 그것은 주로 연화선선과 산림경제라 하겠다.

그런데 『야언』의 기사 중에는 ‘會心’이 들어간 구문이 유독 많은데, 이들 모두는 『청기』 원문을 변환한 것이다. 이렇듯 신흠은 ‘會心’을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개작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청사>21

閉門閱佛書 開門迎佳客 出門尋山水 此人生三樂

<야언>38

閉門閱會心書 開門迎會心客 出門尋會心境 此乃人間三樂

문을 닫고 마음에 맞는 책을 읽는 일, 문을 열고 마음에 맞는 손을 접대하는 일, 문을 나가 마음에 맞는 경치를 찾는 일, 이 세 가지는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이다.

「청사」에 수록된 기사를 허균은 『한정록』 권11 名訓에 그대로 전재한 반면에, 신흠은 『야언』에서 ‘佛書, 佳客, 山水’를 각각 ‘會心書, 會心客, 會心境’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글자의 변환은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6칙에서 ‘超邁乎古今者, 客坐談之’를 ‘與會心友談之’로, 36칙에서는 ‘同知友登山, 趺坐浪談’를 ‘同會心友登山, 趺坐浪談’라고 바꾼 것이 그러하다.

31) 허균 역시 『한정록』 권10 幽事에 뒤의 구절만 수록하고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기』 원문의 ‘佛書’는 성리학 중심의 당시 조선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많은 단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흘은 다른 사대부와 달리 유연한 사고로서 老莊은 물론이려니와 佛禪에까지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었지만,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요소를 없애고자 하여 ‘會心書’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비난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는 다음의 기사 개작에서도 확인된다.

<청어>94

雲白山靑, 川行石立, 花迎鳥笑, 谷答樵謳, 萬境自閑, 人心自闌.

<야언>13

雲白山靑, 川行石立, 花迎鳥歌, 谷答樵謳, 萬境俱寂, 人心自閑.

구름은 희고 산은 푸르고, 시내는 흐르고 돌은 서 있고, 꽃은 새를 맞아 노래하고, 골짜기는 樵夫의 노래에 답하니, 온갖 경치는 모두 고요하고, 사람의 마음은 절로 한가하다.

이 기사 역시 『한정록』 권11 名訓에 전재되어 있는데, ‘雲·山·川·石·花·鳥·谷·樵謳’와 같은 萬境이 ‘절로 한가하지만(自閑)’ 人心은 ‘절로 시끄럽다(自闌)’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흘은 만경이 모두 고요(俱寂)하고 인심이 ‘自閑’하다고 변환시켰다. 신흘은 1613년 이후 인조반정(1623)까지 오랜 기간 野人으로서 생활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좌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감내해야만 하였다. 더군다나 일거수일투족이 주변의 감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세상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흘은 인심이 ‘시끄럽다’고 하지 않고 ‘한가하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선록과 개작의 주제 ‘會心’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신흘은 ‘마음에 맞는’ 기사를 선록하되, 그 기사가 불미스러운 일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이를 개작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의심을 받을 만한 글자나 단어는 다른 글자나 단어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때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 ‘會心’과 ‘閑’이었다.

여기에는 자연의 ‘閑寂’을 느끼면서 ‘自閑’한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신흙의 다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4.2. 글자의 생략·첨가·변환: 서정적 美文 추구

신흙은 『소창청기』에서 ‘會心’의 기사를 취하여 『야언』을 편찬하게 되는데, 52칙 가운데 『청기』를 그대로 전재한 것은 5칙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개작된 것이다. 이처럼 신흙이 원 기사를 대폭적으로 개작한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치적인 혐의를 벗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야언』의 내용과 형식이 일관적인 성격을 갖게 하는 데 보다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개작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점은 무엇인가?

가장 간단한 개작으로는 원 기사에 본래 주제나 뜻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구문 또는 글자를 생략하거나 첨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은 글자를 첨가한 경우이다.

<청어>325

士夫看中人, 在大處不走作, 看豪傑, 在小處不滲漏.

<야언>26

看中人, 要在大處不走作, 看豪傑, 要在小處不滲漏.

中人을 보는 요령은 큰 대목에서 나대지는 않는가 살피는 데에 있고, 豪傑을 보는 요령은 작은 대목이라도 빠뜨리지는 않는가 살피는 데에 있다.

‘要’를 첨가하였지만, 문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글자를 첨가한 항목은 52칙 가운데 몇 항목 안 되지만, 생략한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더군다나 생략은 4글자 이상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첨가한 경우는 1글자에 불과하다. 이는 신흙이 개작할 때 첨가보다는 생략에 주력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되도록 글자를 생략하거나 압축하여 문구를 간결하게 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원 출전이나 생략하여도 전체 맥락 이해에 지장이 없는 虛字는 종종 생략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을 들 수 있다.

<청어>52

黃山谷曰, 子弟諸病皆可醫, 惟俗不可醫, 醫俗病者獨有書耳.

<야언>3

諸病皆可醫, 惟俗不可醫, 醫俗者唯有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나 俗氣만은 치유할 수 없다. 속기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책뿐이다.

위의 기사에서는 반복되는 글자 ‘病’을 생략하였으며, ‘獨’과 같은 뜻을 지닌 虛字 ‘耳’ 역시 생략하였다. 이러한 글자들은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주기도 하지만, 동일하거나 비슷한 글자의 반복은 독서의 긴장감을 반감시키기도 한다. 아마도 신흘은 되도록 글자 수를 줄여서 구문 자체의 긴장감을 높이고자 한 듯하며, 이는 『야언』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사적인 성격보다는 강렬한 인상과 감흥을 중시하는 서정적인 성격을 지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야언』의 서정적 성격은 출전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때 『야언』이 신흘의 전적인 저술로 여겨지기도 하였었는데, 출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시대에는 작자가 典故의 활용 등 과거의 공인된 텍스트를 차용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독자 역시 작품 내부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典故를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찾아내는 것을 커다란 즐거움으로 여겼다. 전고의 의미를 활용하고 찾는 과정을 통해 작자나 독자는 자신의 지식을 확인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문학향유의 한 양상 내지 목표로 삼은 것이다. 특히 짧은 시형 속에 압축적으로 글자를 배열한 한시는 전고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야언』의 출전인 『청기』는 과거의 글을 인용하기도 하였지만, 김계유·이탁오·원굉도·초횡과 같은 동시대 문인은 물론이려니와 오중선 자신의 글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당시 조선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면, 독자는 그 글의 출처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신흘은 원작자나 출전을 밝히지 않았는데, 『야언』이 한 시와 같은 서정적인 성격을 갖는 미문이 되도록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정적인 미문을 추구하다보면 부연설명 등도 과감하게 생략하게 된다.

<청어>76

惟讀書有利而無害, 愛溪山有利而無害, 玩風月花竹有利而無害, 端坐靜默有利而無害. 是爲至樂

<아연>10

惟讀書有利而無害, 愛溪山有利而無害, 玩花竹風月有利而無害, 端坐靜默有利而無害.

오직 讀書만이 有利하고 無害하며, 山水를 좋아함이 유리하고 무해하며, 花竹과 風月을 완상함이 유리하고 무해하며, 단정히 앉아 고요히 말없이 있는 것[端坐靜默]이 유리하고 무해하다.

본래 『청기』에는 ‘讀書, 愛溪, 玩花竹風月, 端坐靜默’만이 ‘有利無害’하다고 하고 이를 ‘是爲至樂’으로 부연설명하였으나, 신흠은 이를 삭제하였다. 이처럼 신흠은 부연 설명으로 여겨지는 내용은 대부분 생략하였는데, 핵심적인 정보만을 제시하고 독자가 그 정보를 통해 알아서 주제를 도출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주체가 ‘世人’과 같이 일반적인 예도 모두 생략하였다. 이렇게 생략을 통해서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여지를 많이 남긴 것이다.

한편, 위의 기사에서 마지막 부연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惟讀書有利而無害, 愛溪山有利而無害.’와 ‘玩花竹風月有利而無害, 端坐靜默有利而無害.’가 대우를 이루게 된다. 이렇듯 신흠은 무엇보다도 대우를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율시의 대우를 고려하여 서정적 미문을 추구한 결과라 하겠다. 다음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청어」315	『아연』20
山樓是勝事 稍有一縈戀則亦市朝	山樓是勝事 稍有一縈戀則亦市朝
書畫鑑賞是雅事 稍一貪痴則亦商賈	書畫是雅事 稍一貪念則亦商賈
杯酒是樂事 稍一曲人則亦地獄	杯酒是樂事 稍一徇人則亦狴牢
好客是豁達事 稍一俗子所撓則亦苦海	好客是達事 稍涉俗流則亦苦海

『청기』에 ‘弁州’를 출전으로 밝히며 수록되어 있는 기사이다.³²⁾ 신희은 이 기사에 글자를 생략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여 완벽한 대우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는 간결한 문장이 대우를 이루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 배려라고 하겠다. 대우를 비롯한 서정적 미문에 대한 추구는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사>84

客過草堂問, “何感慨而甘栖遯?” 余倦于對, 但拈古句答曰, “得閑多事外, 知足少年中.” 問, “是何功課?” 曰, “種花春掃雪, 看籙夜焚香.” 問, “是何利養?” 曰, “研田無惡歲, 酒谷有長春.” 問, “是何過往?” 曰: “有客來相訪, 通名是伏羲.”

<야언>41

得閑多事外, 知足少年中. 棲遁之情也, 種花春掃雪, 看籙夜焚香. 棲遁之興也.
研田無惡歲, 酒谷有長春. 棲遁之味也.

일 많은 세상 밖에서 한가로움을 맛보고 세월이 부족해도 족함을 이르는 것은 은둔 생활의 情이요, 봄에 꽃 심느라 눈을 치우고 밤에 圖籙 보느라 향을 피우는 것은 은둔 생활의 興이요, 研田(문필 생활)은 흉년을 모르고 酒谷에 언제나 봄기운이 감도는 것은 은둔 생활의 味이다.

본래 위의 기사는 唐子西의 일화로서 『암서유사』에 실렸으며, 『한정록』 권10 幽事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손님이 巖棲에 대해서 묻자 응답하기 귀찮아 단지 옛사람들의 詩句를 가지고 대답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신희은 이 기사에서 문답의 상황을 배제한 채 시구만을 취하였고, 그 시구의 뜻풀이로서 각각 棲遁의 ‘情, 興, 味’라로 규정한 문구를 첨가하였다. 신희이 구문을 첨가한 것은 『야언』이 서정적 미문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산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구만을 나열하지 않고 종결어조사 ‘也’를 포함한 구문을 첨가함으로써 해서

32) 허균이 『한정록』 권11 名訓에서 이 기사를 전제하고 그 출전을 『弁州四部稿』라 한 것도 『청기』의 기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운문이 아닌 산문이 되게 한 것이다. 아울러 신희는 스스로가 느끼는 은둔 생활의 ‘情, 興, 味’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신희는 『청기』에서 청언을 선록하되 미문의식을 바탕으로 개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2. 기사의 축약·첨가·융합: 山林經濟의 생활상 표현

앞서 살핀 『야언』 41칙 기사의 개작 양상으로 새로운 구문을 첨가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이 때 ‘棲遁의 情, 興, 味’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신희가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둔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신희는 적극적으로 기사를 개작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살핀 선록의 주제인 山林經濟의 생활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청사>139

有客謂, “山居眷屬難, 山隣難, 山友難, 山仆難.” 余謂, “如此則山堂前草深一太矣. 不如勅斷家事, 擇二三童子自隨, 其強幹者以備烹爨樹藝, 文弱者以備灑掃抄寫. 子孫能相體者, 則送供養, 賓朋能相念者, 則通餽問, 舍此以外, 靡知其他.

<야언>46

勅斷家事, 擇二三童子自隨, 其強幹者以備炊爨, 弱者以備灑掃抄寫. 子孫能相體者, 則送供養, 賓朋能相念者, 則通餽問, 足矣.

집안일을 정리한 뒤 동자 2, 3명을 골라 따라오게 한다. 근력이 있는 자는 불 때고 밥 짓는 일을 맡기고 힘이 약한 자는 청소나 글 베끼는 일을 맡게 한다. 믿음이 가는 자손이 있으면 供養하러 보내고 서로 염려해주는 賓朋이 있으면 선물 꾸러미를 보내 문안을 통한다. 이러면 족할 것이다.

위의 기사는 『巖棲幽事』에 수록된 내용으로서 『한정록』 권10 幽事에도 전재되어 있다. 손이 산생활은 가족, 이웃, 벗, 심부름이 모두 어렵다고 하자 이에 대해 山堂 앞의 풀이 자라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대답하는 내용이다. 신희는 이 가운데 산 생활의 요령을 말하게 되기까지의 문맥을 전적으로 생략하였다. 그 결과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산생활이 아닌 생활 전반의

요령 및 지침이 되었다. 본래 『암서유사』의 내용이 晚明의 山人·隱士가 세상을 벗어나 사는 바를 말하였다면, 방축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숨어 살아야만 하였던 신희미 자신의 처지에 맞게 개작한 경우라 하겠다.

그런데 신희미는 단순히 축약하기만 하지 않고, 기존의 구문에 없는 새로운 문장을 덧붙이기도 한다. 다음이 그러한 예라 하겠다.

<청사>99

住山須一小舟, 朱欄碧幄, 明櫂短帆, 舟中雜置圖書鼎彝酒漿菴脯. 近則峰泖而止, 遠則北至京口, 南至錢塘而止. 風利道便, 移訪故人, 有見留者, 無妨一夜話, 十日飲. 遇佳山水處, 或高僧野人之廬, 竹樹蒙茸, 草花映帶, 幅巾杖履, 相對夷然. 至于風光淡爽, 水月空清, 鐵笛一聲, 素鷗欲舞, 斯也避喧謝客之一策也.

<아언>44

須一小舟, 短帆輕棹, 舟中雜置圖書鼎彝酒漿菴脯, 風利道便, 或訪故人, 或訪名刹. 且畜一歌娃一笛童一琴奚, 與兒小隨意往來煙波間, 以弭寥靜, 最勝致. 顧我國無此境, 亦難辦此具爾.

짧은 돛에 가벼운 노를 장치한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여 그 속에 圖書며 술이며 술과 음료수며 차[茶]며 마른 脯 등속을 싣고는 바람이 순조롭고 길이 편하면 친구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名刹을 탐방하기도 한다. 그리고 노래 잘하는 미인 한 명과 피리 부는 동자 한 명과 거문고 타는 한 사내와 아이를 태우고는 안개 감도는 물결을 헤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왕래하면서 적막하고 고요한 심회를 풍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막힌 운치라 할 것인데, 다만 우리 나라에는 이렇게 할 만한 경계도 없을 뿐더러 이런 도구를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다.

역시 『암서유사』의 기사로 『한정록』 권3 閑寂에 수록되어 있다. 『아언』에서는 그 기사를 축약하여 앞부분에 제시하였고, ‘且畜一歌娃’ 이하는 전적으로 신희미가 첨가한 구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신희미가 ‘자기의 뜻’을 덧붙이는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첨가된 내용을 보면,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歌媢, 笛童, 琴奚’와 아이들과 더불어 안개 낀 물결 위에서

벉늘이 하면서 쓸쓸함을 달래겠다는 내용이 먼저 제시되었고, 이어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勝致를 즐길 만한 경치도 없고 이러한 도구를 갖추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신희의 평이다. 신희는 만명의 청언에 보이는 우아하고 아취 있는 생활의 모습이 당시 조선에서는 이루기 어렵다고 여긴 것이다. 더군다나 野人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신희에게 이러한 벉늘이는 사치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현하기 어려운 일일수록 꿈, 선망, 소망으로서 강하고 오래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희는 꿈과 선망으로서 위의 기사를 수록하면서 다시 자신이 원하는 사치스러운 일을 추가하였고, 당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문구를 덧붙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기』에는 비슷한 주제의 수많은 기사가 자유롭게 수록되어 있다. 굳이 기사를 나누지 않아도 같은 의미로 읽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구문이 중복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晚明 청언집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수많은 청언집의 개별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아 문학적 인 독창성이 반감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신희는 『청기』에서 청언집의 그러한 단점, 즉 비슷한 내용의 반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듯하다. 그 결과 비슷한 내용의 경우 적극적으로 개작하게 되는데, 특히 은둔생활과 관련되어서는 기사를 과감히 융합하기에 이른다. 다음은 『청기』 「清享」의 1, 2, 5, 6칙의 기사이다.

<청향>1

竹几當窓, 擁萬卷, 列百城, 南面王不與易此. 蒲團籍地, 結雙趺, 空萬有, 西方聖立證於茲.

<청향>2

高峰入雲, 清流見底. 兩岸石壁, 五色交輝. 青林翠竹, 四時俱備. 曉霧將歇, 猿鳥亂鳴, 夕陽欲頹. 沉鱗競躍. 實世界之仙都, 自康樂以來, 未復有能與其奇者.

<청향>5

頽垣抱碧, 无非海發山衣. 暗座飄香, 盡是松肪桂蠹. 加以籬邊種菊, 堂後生萱. 覆井之新桐乍引, 臨窗之舊竹猶存. 花妨過帽, 柳碍移門. 鹿去而雲遮絕洞, 樵歸而水繞孤村. 遇境逍遙, 就魚鳥之性樂. 開襟散誕, 見羲皇之道. 尊早濯元泉, 屢

游庭苑. 炊粃稗以爲食, 剖瓠匏而作器. 思任誕于窮檐, 何辭井臼. 不求容於側徑, 何患荊榛.

<청향>6

水色澄鮮, 魚排荇而徑度. 林光澹蕩, 鳥拂閣以低飛. 曲徑烟深, 路接杏花酒舍.
澄江日落, 門通楊柳漁家.

각각 李鼎의 『偶譚』, 高濂의 『遵生八牋』, 陸龜蒙의 <幽居賦>, 도룡의 『사라관청언』의 기사를 수록한 것이다. 그런데 신희은 본래 기사에서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을 묘사하는 문구를 나열하여 새로운 기사를 만들어 내었다. 또 여러 기사를 융합할 때, 각 구문이 대우가 되도록 여러모로 배려함으로써 미문의식을 버리지 않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기사를 완성하였다.

<야언>49

竹几當窓, 蒲團坐地. 高峯入雲, 清流見底. 籬邊種菊, 堂後生萱. 花妨過塢, 柳礙移門. 曲逕煙深, 路接青帘. 澄江日落, 船泊漁村.

대나무 案席을 창가로 옮긴 뒤 부들 자리를 땅에 편다. 높은 봉우리는 구름 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시내는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맑기만 하다. 울타리 옆에 국화 심고 집 뒤에는 원추리를 가꾼다. 독을 높여야 하겠는데 꽃이 다치겠고 문을 옮기자니 버들이 아깝다. 구비 진 오솔길 안개에 묻혔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주막이 나타나고, 맑게 갠 강에 해가 저무는데 고깃배들 어촌에 정박한다.

이 기사를 읽으면, 신희의 일상생활 중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신희은 창가에 죽궤를 끌어당기고 포단에 앉아 있다. 창밖에는 높은 봉우리와 맑은 강물이 보이고, 집 주변에는 국화와 원추리꽃이 피어있다. 때때로 독과 문을 손질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꽃이나 버들이 다치지 않을까 조심한다. 그러다가 좁은 오솔길을 따라 안개 속을 걸으면 주막에 이르고, 거기서 탁주 한 잔을 먹고 있으면 저물녘 돌아오는 고기잡이배들이 보인다. 신희의 거처는

어촌 가까이 있었던 듯한데, 아마도 은방 이후 김포로 돌아갔을 때의 생활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경은 물론 신흠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구를 짜깁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공허하지 않은 것은 신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신흠은 『청기』의 내용을 선록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생활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취하였을 것이며, 그 와중에 새로운 창작 청언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야언』50~52칙에서는 산중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러 도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정록』 권14 淸供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허균은 ‘淸供’에 대해 “산에 은거하여 살 때도 역시 필요한 일용품이 있는데, 枕席이나 음식이 世俗과는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제14 ‘淸供’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 때 ‘淸供’에 수록된 내용의 대부분이 바로 『청기, 청향』에서 전재하한 것이다.

<청향>

竹榻, 以斑竹爲之, 三面有屏, 无柱, 置之高齋, 可足午睡

石枕, 宋磁白定居多. 墓中得之, 甚不可用. 有用磁石爲枕, 如无大塊, 以碎者琢成枕面, 下以木鑲成枕, 最能明目.

蒲花褥, 九月采蒲, 略蒸晒燥. 取花如柳絮者, 爲臥褥或坐褥. 皆用粗布作囊.

『청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물품이 설명되어 있는데, 허균은 위의 내용을 그대로 『한정록』에 수록하였다. 반면에 신흠은 이들 용품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도 세세한 정보를 전혀 수록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물명을 열거하였다.

<야언>52

竹榻·石枕·蒲花褥·隱囊·蘆花被·紙帳·欵床·藤墩·蒲石盆·如意·竹鉢·鍾磬·道服·文履·道扇·拂塵·雲鳥·竹杖·瘦杯·韻牌·酒罇·詩筒·禪燈, 皆山居之不可闕者也.

竹榻·石枕·蒲花褥·隱囊·蘆花被·紙帳·欵床·藤墩·蒲石盆·如意·竹鉢·鍾磬·道服·文履·道扇·拂塵·雲烏·竹杖·瘦杯·韻牌·酒罇·詩筒·禪燈, 등은 모두 산중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들이다.

신흠은 『청기』에 기재된 여러 물품 가운데 자신이 직접 가지고 있거나 구하기 쉬운 물품을 열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굳이 그 물품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지 않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 산중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들이다.’라고 하여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물품의 용도를 말하였다.

이처럼 신흠은 자신의 은거 경험을 바탕으로 『청기』의 기사를 개작하여 山林經濟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그런데 신흠은 이 때에도 서정적 미문을 이루도록 여러모로 고려하고 있어서, 선록과 개작에 여러 의도를 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野言』의 선록과 개작 의의

『야언』은 『한정록』과 더불어 17세기 초 조선의 청언 선록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신흠은 단순히 選錄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개작을 가하기도 하였다. 글자의 생략·첨가·변환, 기사의 축약·첨가·융합 등의 개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러한 개작이 한 기사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개작 이면에는 신흠의 『청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야언』은 뚜렷한 선관을 가지고 많은 공을 들여 엮은 것이며, 하나의 독립된 편저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흠이 선록하고 개작한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신흠은 『청기』에 수록된 기사 가운데 淸言만을 취선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청기』에는 淸言 외에도 문예적 흥취를 만끽하고 嗜好와 癖에 몰입하여 있는 인간 군상들의 삶의 편린을 소재로 삼은 일화가 많다. 허균은 그러한 일화를 『한정록』에 적극적으로 선록하였으며,³³⁾ 특히 癖과 관련된 내용에 주목하였다. 한 가지

예로서 허균이 원경도의 <瓶花史>와 <觴政>, 오종선의 <書憲>과 <花案>, 그리고 진계유의 <書畫金湯>과 같이 한적한 문예취향을 드러내는 편폭 긴 글에 관심을 두고서 『한정록』에 이를 전제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헌>은 문인들의 ‘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허균은 바로 <서헌>의 ‘僻’에 대한 논리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일정한 주제에 대한 마니아적 취미와 일맥상통한다.

반면에 신희은 이러한 편폭 긴 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 즉 淸言에 주목하였다고 하겠다. 그 결과 <병화사> 등의 글을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소창청기』의 새로움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허균과 신희은 같으나, 두 사람의 수용태도는 조금 달랐던 것이다.

신희이 『청기』에 수록된 청언에 주목한 것은 짧고 간결한 문장 속에 삶의 哲理를 예술성이 풍부한 문학적 표현으로 담아낸 점을 포착해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만명의 청언은 교훈적인 메시지가 강했던 이전의 잠언 문학과 달리, 운치와 흥미, 각성을 동시에 전달해주는 특성을 지닌다. 간행·출판이라는 상업적인 형식을 통해 유통되었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구미를 충족시키는 감각적이고 운치 있는 짧은 글로 엮어지게 된 것이다.³⁴⁾

특히 이 시기 청언은 이전의 시문창작과 또 다른 방식을 지니는데, 자신이 주위의 자연경물을 감상하거나 인생철리를 체득하여 지은 문장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陳繼儒를 비롯한 청언 작가는 짧은 문장 속에 자기 주변의 일상이나 개인의 흥취, 고상한 말 등을 드러내거나, 속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주자연의 법칙과 인생철리를 한담하거나, 옛 서적을 통해 체득한 것들을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청언집은 ‘言, 譚, 語’로 명명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 문장의 형식이 ‘文’이 아니라 ‘言’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³⁵⁾

신희은 이러한 청언 소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하였다. ‘野言’이라는 명칭이 바로 ‘淸言’을 의식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신희은 청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작을 진행하였다. 그가 개작하지 않은 기사가 주로 극도로

33) 신영주, 「양란 이후 문예 취미의 분화와 그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31, 2006, pp351-352.

34) 吳承學, 『晚明小品研究』, 南京: 江西古籍出版社, 1999, p.290.

35) 강경범, 「陳繼儒 淸言小品放」, 『중국문학연구』27, 2003, pp232-233.

짧은 문장이 산문체로 씌었으면서도 시적인 표현이 구사된다는 공통점을 지닌 것이 바로 그 근거이다. 신흘은 시적인 표현을 포함한 문예적으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짧은 문장을 지향한 것이다. 淸言의 문체적·시적 특징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또한 신흘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록하였다. 그것이 바로 ‘會心’의 의미로 파악된다. 즉 실재하지 않아 관념적이고 공소하여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활하며 느낀 감회를 드러내 주는 청언만을 취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생활상을 드러내기 위해 과감한 개작을 감행하기도 한 것이다. 이 역시 생활의 지혜나 삶의 철학으로서의 청언의 특징을 포착한 결과라 하겠다.

특히 『야언』 권1은 문학적인 정취가 가득한 淸言을 수록한 것으로, 당대에 새로운 글쓰기로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필사본 『야언』과 이를 간행한 목판본의 존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청언집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점에 신흘의 감식안으로 취하여지고 다시 신흘의 문장력으로 개작된 『야언』이 당대에 예술작품으로서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6. 남는 문제

본고는 『야언』 권1에 수록된 청언의 출처를 찾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개별 기사가 『사라관청언』, 『암서유사』, 『우담』, 『준생팔전』 등의 청언집에서 찾아지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기사가 『소창청기』에서 선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17세기 초 새롭게 부상하는 문예 취향을 드러내는 청언집을 신흘이 열람하고 선록집을 만든 것이다. 나아가 신흘은 선록 과정에서 ‘청언’의 양식적 특성과 자신의 처지에 맞도록 개작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본고는 『야언』의 주변적이고도 형식적인 내용을 규명하는데 힘쓰느라, 여기에 투영된 신흘의 내면의식을 치밀하게 고찰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야언』에는 청언집을 선록한 권1 외에 철리적인 내용을 담은 권2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접근하지 못하였다. 다만 권1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서적에서 선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道書全集』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서전집』은 金陵閻氏(閻鶴洲)가 1591년(萬曆 19)에 金丹, 參同契, 神仙 등 道家 관련 서적을 모아 엮은 책이다. 이보다 앞서 紫霞山人 涵蟾子가 편한 『금단정리대전』이 1471년(成化 7)에 간행되었던바, 『도서전집』은 『금단정리대전』에 다른 서적을 더 추가하여 만든 거질의 총서이다.³⁶⁾ 『야언』 권2에 수록된 기사는 『金丹大要』, 『文始眞經』, 『中和集』, 『化書』에서 확인되는데, 『금단대요』는 『금단정리대전』에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도서전집』에 수록된 저서이다. 우리나라에 『도서전집』이 언제 유래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한정록』에도 『도서전집』이 인용되어 있어서 당시에 여러모로 유통되었다고 추정할 뿐이다.

또한 『야언』의 문학사적 의의를 구명하는 것도 남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지만, 신흘과 절친하였던 李睟光이 薛宣의 『讀書錄』을 읽고 『讀書錄解』를 남긴 것 또한 청언 수용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수광, 신흘, 허균이 거의 동시기에 비슷한 저작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신흘과 허균의 경우를 비교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이들 저작 간의 상관관계는 물론이러니와, 후대에 끼친 영향을 두루 살피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36) 김윤수, 「『금단정리대전』과 『도서전집』의 원류」, 『노장사상과 도교문화』, 한국도교사상연구회, 1995.

	내용	한정록(출전)	소창청기	원 출처
1	可稱煙火神仙	10유사(암서유사)	6a	娑羅館淸言
2	此是山林經濟		6a	娑羅館淸言
3	子雲玄亭 停欄問字	11명훈(소창청기)	9b	
4	諸病皆可醫 惟俗不可醫	12정업(공여일록)	14a	
5	飲酒有眞趣		14a	
6	逸客高蹤 幽人妙韻		14b	
7	友之疏狂者 足啓庸俗		14b	
8	名心未化 對妻孥亦自矜莊		16b	
9	事當快意處能轉	11명훈(소창청기)	16b	
10	破綻處 從周旋處見		17a	
11	惟讀書 有利而無害	11명훈(미공비급)	18a	
12	茶熟香清 有客到門可喜 眞源無味 眞水無香	11명훈(소창청기)	19a 19b	娑羅館淸言, 巖棲幽事
13	雲白山青 川行石立	11명훈(소창청기)	21b	
14	意盡而言止者 天下之至言也		25b	策總敘
15	人生一日 或聞一善	11명훈(공여일록)	44b	
16	詩堪適性 過則刻苦	11명훈(소창청기)	45b	娑羅館淸言
17	風流得意之事 一過輒生悲涼	11명훈(소창청기)	54b	娑羅館淸言
18	花太麗者馨不足		58a	
19	爲文而欲一世之皆好之	11명훈(소창청기)	60b	
20	山樓是勝事 稍有繫戀則亦市朝	11명훈(엄주사부고)	60b	(弇州)
21	才俊人宜學恭謹		62a	
22	俗語近于市 縑語近于娼	11명훈(미공십부집)	62a	
23	仁厚刻薄 是修短關	11명훈(소창청기)	62b	
24	盛名必有重責 大巧必有奇窮		62b	
25	看中人 要在大處不走作		62b	
26	濃於聲色生虛怯病		64a	
27	客散門扃 風微日落 詩句初成		1a	
28	長廊廣榭 曲水回磴 野鳥江鷗		5b	
29	有可有不可是爲世法		6b	
30	鹿養精 龜養氣 鶴養神 故能壽		40b	
31	靜處煉氣 動處煉神	15섭생(금단정리대전)	42b	偶譚
32	君子不辱人以不堪 卽寡怨		70a	
33	春序將闌 步入林巒 松竹交映		2a	遵生八牋
34	桑林麥壘 高下競秀		3a	遵生八牋
35	與衲子坐松林石上		6b	

	내용	한정록(출전)	소창청기	원 출처
36	同會心友登山 趺坐 浪談		7a	
37	霜降木落時 入疏林中 坐樹根上	5유홍(소창청기)	7b	
38	閉門閱會心書 開門迎會心客	11명훈(소창청기)	8b	
39	降石出 潭水澄定 古木垂蘿	5유홍(소창청기)	8b	
40	鼓琴偏宜于桐風 澗響之間		9b	
41	杏花疏雨 楊柳輕風		17a	
42	得閑多事外 知足少年中	10유사(암서유사)	36b	巖棲幽事
43	良宵宴坐 篝燈煮茗 溪水自韻	12정업(소창청기)	40b	玉壺水?
44	須一小舟 短帆輕棹	3한적(암서유사)	43a	巖棲幽事
45	初夏園林 隨意拂苔蘚坐石上	3한적(소창청기)	54a	
46	勑斷家事 擇二三童子自隨	10유사(암서유사)	65a	巖棲幽事
47	荊楚歲時記 小寒三信		66a	荊楚歲時記
48	人生唯寒食重九 慎不可虛擲		75b	初到黃州
49	竹几當窓 蒲團坐地 清流見底		1a-2a	偶·遵 등
50	凡山具設經籍子史 備藥餌方書	14청공(암서유사)	3a	巖棲幽事
51	深山高居 爐香不可缺 佳品乏絕	14청공(소창청기)	11a	
52	竹榻石枕蒲花褥 隱囊蘆花被紙帳	14청공(소창청기)	16-20	

참고문헌

1. 자료

- 申 欽, 『野言』, 필사본, 서울대 중앙도서관 <일사 041 Si61y>.
 申 欽, 『野言』, 필사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5416>.
 申 欽, 『野言』, 목판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만송 C12 A75>.
 吳從先, 『小窗淸紀』, 필사본, 서울대 중앙도서관 <0330 138 1~3>.
 吳從先, 『小窗淸紀』, 萬曆 刊本, 『四庫全書存目叢書』253.

-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1~162.
 申 欽, 『象村稿』, 한국문집총간 71~72.
 申翊聖, 『樂全堂集』, 한국문집총간 93.
 申翊聖, 『先集』, 가장 초고본.
 張 維, 『谿谷集』, 한국문집총간 92.

2. 논저

- 吳承學, 『晚明小品研究』, 南京: 江西古籍出版社, 1999.
 王重民, 『冷廬文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 강경범, 「陳繼儒 淸言小品攷」, 『중국문학연구』 27, 2003.
 김성진, 「조선후기 소품문과 양생」, 『동양한문학연구』 30, 2010.
 김영진, 「조선후기의 淸言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3.
 ———, 「18세기 말 서울의 명·청 서적 유통 실태」, 『17, 8세기 동아시아의 독서 문화와 문화변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4.
 ———, 「조선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 문화」,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 한국학연구소편, 한양대출판부, 2006.
 김우정, 「申欽의 散文과 前後七子」, 『大東文化研究』 69, 2010.
 김윤수, 「『금단정리대전』과 『도서전집』의 원류」, 『노장사상과 도교문화』, 한국도교사상연구회, 1995.
 김은슬, 「『閑情錄』 인용문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09.

- 김은정, 「樂全堂 申翊聖의 文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 노경희, 「許筠의 중국 문단과의 접촉과 詩選集 편찬 연구」, 『한국한시연구』 14, 2006.
- 박희병, 「신흙의 학문과 사상」,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 부유섭, 「허균이 뽑은 중국 시(1)-『唐絶選刪』」, 『문헌과해석』 27, 2004.
- 신승훈, 「朝鮮中期 文章家들의 陽明學 受容의 樣相과 意味」, 『東洋漢文學研究』 20, 2004.
- 신영주, 「양관 이후 문예 취미의 분화와 그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31, 2006.
- 정길수, 「17세기 長篇小說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논문, 2005.
- 한영규, 「조희룡 산문의 晚明 淸言小品 수용과 그 특징」, 『한문학보』 4, 2001.
- _____, 「『閒寂』의 선망과 『閒情錄』」, 『문헌과해석』 19, 2002.
- _____, 「明清과 대비한 조선후기 淸言小品의 특징」, 『고전문학연구』 21, 2002.
- _____, 「『송천필담』의 明代 淸言 수용 양상」, 『정신문화연구』 33-3, 2010.

A study on *YaUn*(『野言』) as a collection book of *CheongUn*(淸言)
edited by *ShinHeum*(申欽)

Kim, EunJeong

ShinHeum(申欽, 1566~1628) was well acquainted with the literature and scholarship of *Ming*(明) dynasty. It is true that he read many books which were published in *Ming*(明) dynasty, but he didn't disclose titles of that books. Therefore there are no evidence of the fact that *ShinHeum* contacted books published in *Ming* dynasty.

YaUn(『野言』) edited by *ShinHeum* was a collection book of *CheongUn*(淸言) of later *Ming* dynasty, as well as other occasions, title of that book which he refer also has unknown. But by researching in this study, the book that *ShinHeum* refer is *SoChangCheongGi*(『小窗淸紀』) which was edited and published by *OhJongSun*(吳從先) who was a literary man in later *Ming* dynasty. It is similar to *HanJeongRok*(『閒情錄』) written by *HeoGyun*(許筠, 1669~1618).

There are some differences *YaUn*, as compared with *HanJeongRok*. First, *ShinHeum* had a selecting standard of *HoiSim*(會心). Second, *ShinHeum* only selected short compositions of *CheongUn*, while *HeoGyun* rather selected long compositions that had crazes for various specialties. Third, *ShinHeum* rewrote most of compositions for the purpose of lyrical elegant prose. Particularly, *ShinHeum* represented the daily fact of *SanLimGyungJe*(山林經濟) that is a life in the nature.

Key words: *ShinHeum*(申欽), *YaUn*(『野言』), the literature and scholarship of *Ming*(明) dynasty, *SoChangCheongGi*(『小窗淸紀』), *CheongUn*(淸言), select, rewrite, *HeoGyun*(許筠), *HanJeongRok*(『閒情錄』), *HoiSim*(會心), lyrical elegant prose, *SanLimGyungJe*(山林經濟)

접수일자: 2010. 8. 30
심사기간: 2010. 8. 30~2010. 11. 20
게재결정: 2010. 11. 20